

# 장춘의 새로운 명소

## 북경대가서(西) 역사문화거리

© 본면 취재 손맹번 류향휘 기자

예술문화, 상업관광, 생활미학을 일체화한 '도시융점실'인 장춘시 북경대가서 역사문화거리의 부분적 구역 개조가 완성되면서 올해초부터 시험운영을 시작했다.

이 역사문화거리는 역사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한 기반 위에 건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예술문화 전시를 열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모은 동시에 도시에 독특한 문화예술적 분위기를 더했다.

◀ '빨간색 계단'은 또 하나의 인기 명소로 자리잡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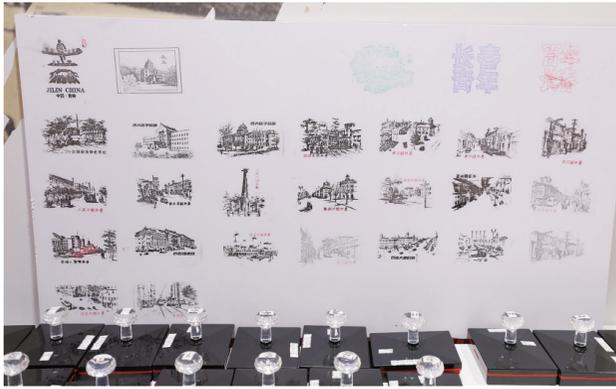


### '백년장춘' 계열 주제 전람

'백년장춘'전람회는 '장춘옛일', '누가 운명을 주도할 것인가(谁主沉浮)', '공화국을 위한 가속(为共和国提速)', '희망과 미래'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도, 사진, 문헌, 신문, 화보 등 소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. 이번 전람회는 생생한 역사교과서처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장춘의 과거와 현재를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.



▲ 전시된 유물을 감상하고 있는 관광객 ▼ 창의적인 기념 스탬프



### 중국 신년 선물(中国年礼)

#### —기원·혁신 전국 목판년화 전람

이번 전람회는 전국 목판년화(木板年画)의 정품과 혁신 작품 300여폭, 고판(古板) 및 창작 조각 목판 90점, 음력설 문화 창의 디자인 작품 20여점을 선보이며 현대 디자인 언어로 중국 음력설의 독특한 매력을 재해석했다. 관람객들은 전람회 현장에서 목판년화 제작을 체험하며 전통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.

▶ 중국 전통 공미가 다분한 전시장  
▼ 한 청년이 자신이 만든 목판년화를 전시하고 있다.



### 량사성—림취인 역사자료 전람

전람관에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. 이번 전람회에는 량사성과 림취인의 생활용품, 친필 원고 등 소중한 전시품들이 진열되어 그들이 겪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. 한편, 시민과 관광객들이 역사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람회는 또 량사성과 림취인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문헌 자료를 폐지별로 나누어 전시했다.



▲ 전람관 내부 풍경 ▼ 량사성이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모자



### '사계절의 장춘' 왕건국 유화작품 전람

이 전람회는 사계절을 맥락으로 24폭의 유화작품을 통해 장춘의 도시 풍경, 특색건축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냈다. 생활의 정취로 가득찬 유화작품들은 관람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.



▲ 촬영애호가 작품 찍고 있다. ▶ 왕건국의 유화작품

### 박대동방미술관

미술관은 장춘문화관광그룹과 협력하여 이번 전시를 개최했다. 전람관내에는 서비홍의 웅장하고 장엄한 그림작품뿐 아니라 중화민국 사공자(四公子) 중 한명인 원극문의 서예작품도 전시되어 많은 서화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. 양비상 관장은 이곳에 소장된 작품들은 그가 20여년 동안 수집한 고대 및 근현대 예술품의 진품이라고 밝혔다.



▲ 서화애호가 서화작품을 촬영하고 있다.

### '길자호' 농산품 전시판매



이번 전시판매회에는 길림성 특색의 다양한 농산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거리에 독특한 생활의 정취를 더해주었다.

◀ 옛 상해의 댄스홀을 연상시키는 복고풍 건축물  
▼ 각양각색의 특색제품

